

지역 소식통

김제경찰,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24일 오전 10시 40분 김제시 박약국사거리에서 김제 장애인협회와 함께 '이륜차 법규준수 동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교통관리계장 등 교통관리계 내·외근과 김제·익산·완주장애인협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위반 행위 집중단속과 '동승자도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김제시 교월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태환)는 24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 2명을 선정하여 각5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교월동 소산마을 최정복씨가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며 추천하여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상담을 실시한 결과 가구주의 사업실패와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장학금은 최정복씨가 매일 교월동에 기탁하는 후원금을 모아서 마련하였다.

최정복씨는 지난해 교월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통장업무 하던 중 받은 통장수당 205만원을 이웃돕기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으며, 금년에는 위기의 축구 꿈나무에게 매일 3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아동대상 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 실시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23일 수송동 소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대상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중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진단 척도 검사를 통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성 파악 ▲중독에서 벗어나는 수 있는 방법 및 대안활동 모색 ▲각 아동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실천 다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군산시드림스타트는 매년 아동의 전인적 발달 지원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인터넷 중독 및 예방교육과 함께 ▲영양교육 ▲아동권리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화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김관문 기자



완주군 화정 저수지가 불법 시설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화정 저수지 불법시설물 '몸살'

음식물 쓰레기·노상방뇨 등이 수질 오염 주범... 완주군 "시정 요구할 것"

완주군 화정 저수지가 불법 시설물(방갈로 3동, 이하 시설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불법 시설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낚시인들에 안전사고에 노출 되어있어 관계당국에 단속이 요구된다.

지난 18일 제보에 따르면 완주군 고산면 양아리 산 100 일대, 화정 저수지에 불법 시설물을 지어놓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실제 24일 저수지 한 가운데 불법 시설물이 놓여 있다.

문제는 불법 시설물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낚시를 하는 낚시인들에 먹

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노상방뇨로 인해 저수지에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 시킨다는 것.

완주 한 환경전문가는 "낚시인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노상방뇨 등이 생각보다 많은 오염을 시킨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곳에 심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낚시인들에 안전사고가 노출된 가운데, 불법 시설물에서 사고가 일어 날 경우, 이를 이용하는 낚시인들이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 관계 당국에 단속이 요구되는 대목

이다. 완주군 용진면 A 씨는 "화정저수지에 불법 시설물은 2년이나 지났는데도 완주군 과 농어촌공사는 무엇을 하는지 알수 없다"면서 "불법 낚시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에 완주군 관계자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주, 완주, 임실지사 관계자는 "낚시터에 공문을 한번 더 발송하고, 그런데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일제출장 결과 보고 · 국회 심의단계 대응 방안 논의

김제시는 24일 이견식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국가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그간 41개사업, 총사업비 7,044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에 대해 지적사항을 제외한 신규사업 26건(18년 요구액 462억원)과 주요 계속사업 10건(18년 237억원) 등 총 36개사업(18년 요구액 699억원)에 대하여 부처 예산안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제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기재부 및 국회 심의단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고회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3일 동안 시장, 부시장, 국장 등 시 지

휘부가 국토부, 기재부, 국회 등을 잇달아 방문하여 김제육교재가설사업, 종자가공처리센터구축, 새만금 수목원 조성, 용지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등 국비확보 대상사업과 김제시 보훈회관건립,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등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위한 김제지평선축제와 금산천 하천정비 공모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김제시는 부처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신규사업 9건에 대해 심도있게 대응계획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전북권 대선공약인 새만금 내부개발과 농생명클러스터 육

성과 연계하여 새만금 전방타워조성, 새만금 간척지농업연구센터건립, 용지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종자가공처리센터구축 등의 사업은 18년 국가예산에 반영 되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심포리 길곶봉수대 정비사업과 석정이정직 기념관 건립사업 등 공모사업의 경우 전문가 그룹인 시정연구원 자문과 향후 평가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고, 행정절차 미행으로 인해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한편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소장 책임하에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움직이는 창의놀이터 진행

완주진로교육지원센터 토요진로학교 운영

완주진로교육지원센터는 24일 봉동 생강골공원에서 청소년 6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요진로학교인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움직이는 창의놀이터'는 학교밖 진로교육지원 사업 중의 하나이다. 자연놀이, 전래놀이, 동작 및 미술놀이 등을 통해 청소년끼리 함께 어울리며, 친구들과의 관계형성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주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월부터 6월까지 구이, 봉동, 운주, 소양, 이서, 고산 및 인근지역에 총 8회 진행된다.

한편 완주진로교육지원센터의 토요진로학교는 도담생태 창의진로연구회, 아이가꿈꾸는세상 교육협동조합, 완주예술심리연구소 마음길 등 지역의 교육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소득 가구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나서

완주군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에 나선다.

24일 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이용해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시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해 진행되는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완주군은 지난 3월 말까지 총 68가

구가 선정, 가구당 평균 300만원에 해당하는 시공 및 물품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차 사업은 8월까지 가구 추천 및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일정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한 시공업체가 6월중 대상가구별 방문조사 및 집수리 견적을 마친 뒤 8월까지 고효율 보일러 등 물품과 함께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다공사 등 본격적인 시공과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유관기관과 함께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2주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하여 금연지도원, 경찰서, 한국외식업협회가 2개 점검반으로 편성 PC방, 금연거리, 도시공원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 지역주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 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까지 부과 징수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이 참좋다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